8月5日(火)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申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九白
主幹 李田榮

# 基督申報
THE CHRISTIAN PRESS

**聖句**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닌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 2절

# 平和에 支拂한 韓國의 代價

## 百万信徒는 再建에 厥起

## 基聯은 世界에 呼訴!

## 再南侵과 悽慘한 避難

## 青年·傳道事業

## 社會事業

## 文書事業

## 視聽覺教育

## 結論

## 남아의 기근 교회는 일치

## 監理會南韓에 五百余教會

## 敎役者質的向上을要請

## 부러운 建築會社

## 世界을림픽 大会마라톤에

## 崔崙七氏四等入賞

## 傷夷軍人新生會 積極的活動

## 찾는 사람 張崙坤

## 望臺聲

## 祝

婦人傳道會長 李正喜
〃 副會長 林善愛

## 說社 1 헤롯의 누룩을 삼가라

우리는 지난 번 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격적 결함에 가장 큰것이 거짓이오 이 「허위」와 또 허위에서 나오는 위선(偽善)은 예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것이오 우리 교회안에도 분명히 이 허위라는원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제 다음에 예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또 우리 나라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 종력는 원수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으로더브터) 삼가라고 경계하신 「헤롯의 누룩」(마가八장十四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쓰는말로 하면 아첨이오 「권리아부」라는 것이다.

2

헤롯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아첨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보전하여 자기 벼만 불릴뿐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영예를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에는 의리가 없는 것이니 물론 진실도 없고 양심도 팔아먹게 되는것이다. 곧 아첨을 하기위하여는 아첨하는 목적을 달하기위하여는 친구도 팔고 동포도 나라도 팔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영예와 행복이 오는 상대자를 기쁘게 하기위하여는 어떠한 모략도 하고 거짓말이나 허위행동도 하는것이니 예로부터 강대국 밑에있는 약소민족 가운데 이 일이 있었고 권력자 밑에있는 용렬한 하관과 부하가 취한 노예적 태도다.

3

하관이나 부하가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환심을 사려고 하는것은 마치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끌기위하여 화장을 하고 정다운 태도를 보이는것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예수의 사자로서는 아모것도 꺼릴것이 없었고 그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것이다. 「코모숄」의 직무는 종교에 대한 의식적인 태도를 이당.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와 자유세계에국민들을 비난하고 또 공산주의를 사기들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정의와 자비와 동정과 그밖에 모든 정신적 본질을 가질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이 본질적인것을 강조할때에 자연 누구나 이기적이오 담욕과 시기를 가지게되며 따라서 권력과 이 있는자는 자기가 탐하는 것을 가지고 그 그밖에 물자를 노누어주는 일과 사람사이의 협조(協助)와 서로 돕는일을 못하도록 막는 따위일을 많이 하고있는 것이라.

(계속)

昭27.8.9 東上野 基聯

(混聽勞啓蒙) 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업 전부가 발전된것은 아니당.

一九五〇年六月二十五日 동난 폭발당시에 대부분은 놀란것뿐이고 피란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중공군(中共軍)의 침입을 받을때에는 제일차 침입을 받았을때의 당한 교생을 생각하고 전시민과함께 기독교들은 모다 피난할길을찾어 떠났다 그러나 엄동으로 그 정경은 비참하였다. 이들을 부산 종점까지 이동시키는 일에는 장로교 측으로는 아담스박사의 공헌이 적지 않었다.

피란한 교역자들은 그 생활을 미국 푸로테스탄트의 전면적 원조에 의존할수 밖에없었다 이같은 호의에 감격하여 미국에는 천선사절로 한경직박사와 유형기박사를 파견하였다

한기련(韓基聯)은 이동란속에서 임무의 중대함을 깨닫고 유호준목사를 임시총무에 임명하고 약간의 간사를 두었다.

一九五一年十一月에는 NCC주최하에 교역자협회가 다음과같은 목적으로 조직 되었다.

(一) 기독교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연락을 도모함

(二) 교역자 양성 (三) 동일교안 교재협동연구를 할것

## 社會事業

구제사업에 있어서는 C, W S와 연락합처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분립되고 한기련은 연합사업의 기본 문제 조사임무를 부담하고있었다. 二百개소의 전재고아원중에 八五%는한기련 관계의 기독교 사업체였다. 이들 위하여 모금, 위문품 모집 배부를 하였다.

## 文書事業

NCC는 문서운동에 있어서 한국기독교 교육협회를 중심하여 문서전도를 전개하고있으나 이에 책임은 기독교서회 김춘배목사가 지도 하고있고 이에 배례사 선교사가 협력하여 보급에 진력하고있다. NCC는 현재 기독교연감을 편찬하고있었다.

## 視聽覺教育

기독교 방송국은 설비중이던 바 동란으로 정지되어있으나 피란지에 순회 영화 방송을 하고있다. HLKA에 선교자를 파송하여 기독교 방송을하며 개획적 연구도하고있는데 이에는 디캠푸씨가 노력하고있다.

## 結論

한국이 동란을 당하여 세계 각국의 관심과 위로를 받는것은 감격하는바이나 미국신도들의 경제적 원조와 협력은 다대한바가있다. 선교자와 피선교자들사이에 종시 일관한 노력에 대하여 우리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계전도에 충성을 약속하는 바이다.

## 남아의 기근 교회는 일치

태평양지구 공려회회의에 참

최근 감리회보에 의하면 한국감리회는 三八이남에 교회수가 六月현재로 五百여개소라하며 교역자는 남녀 합하여 五百四十명을 헤일수 있다한다. 그중 남자가四百을 넘고 연회정회원 百十명 준회원十수명서리교역자 百十명이다.

六二五사변으로 인한 교역자 부족때문에 서리교역자(보충교역자)들 새울수밖에 없었으나 교회의 질적발전을 생각할때 닥관할수 없다한다. 실력 부족한 교역자로는 능력있는 교회를 만들수 없으니 서리교역자는 크게 각성하고 밑낯으로 시간을 애껴 실력배양에 분투하라 실력없는 교역자는 자연도태 될날이 멀지않을것이라하여 자극많은 직언(直言)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실례(實例)를 감리회보 소화에서 볼수있다고 하면서 다음과같이말한다

현재 감리교 장년(壯年)신도는 약五萬名인데 감리회보는 三千部들 발행하여도 소화 하기에 힘들다. 이렇게 독서열이 없고야 교회가 어찌 실력을 배양할수있으랴

이것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관이니이것으로 서로 연락하고 소식을 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

우리가 신문을 볼만하고 환영받게 만들지못하는 책임도 있겠지마는 암만해도 우리네가 단결력이 없고 우리들은 협력하는 정신이 부족한 까닭이오 그리고 글을읽는 열이 부족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부디 서로 권해가면서 신문을 읽어주고 좋은 의견도말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큰 협력이다.

△

그래도 우리말로된 교회신문이오 본국 소식도 나고 이곳 교회소식도 나고, 좋은 설교 말씀도있으니 좌우간 좀 읽어 보아주었으면 좋으련만!……

우선 읽어 보고나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되였다든지, 않되였다든지, 하였으면 좋을텐데 당초에 읽지를 아니하는 모양이니 참 답답한 일이다.

이것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관이니이것으로 서로 연락하고 소식을 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

그렇지를 못하니 더 답답하고 맥이 빠진다.

△

제일 섭섭하고 답답한 일은 우리는 이렇게 더운데 골이 빠지도록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애써 발송을 하것만, 보아 주어야지요, 교회에서는 묵은것이 그냥 책상에서 낮잠을자고있고 신문피봉을 뜯어보지도 아니하는 분도 있으나, 이런 무심하고 무정할데가 있소?

△

날이 더워졌다. 본격적 더위다. 여름이라 날이 더운것이야 어찌하랴마는 그래도 좀 재미있고 시원한 일이 있으면 덜 답답할터인데

聖句 시편 32편 1, 2절
昭27.8.9 東上野 基聯
祝 婦人傳道會長 李正喜 〃 副會長 林善愛

謹告
本支社는 七月二十日부터 左記와 如히 事務所를 設置하옵고 広告取급讀者募集 廣告料 收納等의 事務를 開始하였나이다. 關西地方管內 各教會와 讀者 衆位께서는 上記用件等은 本支社로 直接 連絡하여 주시기를 삼가바라나이다.
大阪市大淀區本庄東通二ノ四〇
在日本大韓基督教 大阪北部教會內
基督新報社關西支社
支社長 趙淇善
記者 金珠浩

本社錄會
西南地方支社
支社長 韓延洙
福岡支局長 金得寶
下關支局長 崔聖八
熊本支局長 襄順姬

# 心靈의 聖火를 痛悔懇求

## 東京教會諸職修養會開催

도ㅡ교ㅡ교회에서는 지난 七月二十一、二일(신축성전 입당기념일)에 사루시마에 제직수양회를 열었다。성전건축에 수고한 제직들을 위로하며 더한층 격려를 받기위한 수양회는 다채로운 푸로구람으로 온헤가 많었다하는데 강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一)개회예배「환난을 극복하자」김창근목사 (二)캐과이야「참가자전원의 신앙간증」(三)二十二日새벽「오른손의 인장반지도 빼어 버리시거든」김양선목사 (四)강연「현실생활과 기독교인의 책임」장이욱박사 (五)폐회예배「밭모섬의 요한」오윤태목사등이었꼬, 그사이에 제직 간담회등이 있어 교회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이 많었다는데 제직회 서기부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하여 제직요람(諸職要覽)을 등사제본하여 배부하는 등 분주 하였던 수양회의 성과는 오히려 평상생활에 기대되는바 있다。

★

수양회에 참석하였던 한 신도회담화「동경 교회는 모다들 냉정하다하며 자리잡은 교회원이 적어보인다」고 하는데 이번새제직만 모은 수양회에서 반성과 건설적 의견이 구체적으로 있었음나당 수양회를 계획한 이유도 거기 중심이 있었지요 결과들 말하자면 지도층이 먼저 성령을 받고 피차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하며 진심히 섬겨야 한다는점인데 금후 실천생활이 크게 기대됩니다。

平和를 祈禱하는 어린이들

# 京都教會勉靑

## 二十三週年記念行事擧行

경도교회 면려청년회는 지난七月二十五日 창립二十三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하였다。

二十五日은 신학강연、노방전도、밤 전도강연 노방전도、밤 전도강연 二十六日도 신학강연이 있었는데 강사로는 동지사 대학 우오끼교수、신호개혁파 오까다교수、모리야목사를 청하였다。

동 청년회는 조국수난을 색각하고 외지에서 기독청년의 사명을 다하여 철저한 인격을 수련코저 다음과 같은 표어를 발표하고 실천을 강조한것이다。(1)생명은 신앙、(2)생활은 기도、(8)사명은 전도、(4)봉사는 교회、(5)실천은 사랑、(3)윤리는 성경、(7)목적은 구원、(8)소망은 영생

## 古今宣教者紹介

# 쿠퍼 牧師의熱誠

쿠퍼목사

요지음「히로시마」(広島)거리에는 키크고 머리 털 희고 눈이 노란 늙으신 할머니가 옷은 흔히 한복을입고、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무슨 종이조각을 손 가방에서 꺼내주면서「ヨク読デ下イ」「잘 읽어 보십시요」하고 간절이 부탁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있다。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로「한국 감리교회」의 여자목사이신 미국인 쿠퍼양이옥「히로시마」도상의 그리스도의 사자이다。

이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일흔 다섯이신데、보기에는 솜 예워보이지마는、믿음으로 육신도 건강하시어서 하루도쉬지않고 이집저집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그는 수돌두살 한창 정춘시절에 고국과 부모천척을 버리고 멀리 한국땅에 와서 오십일년동안을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셨다。대개 원산에 게서 성경 학원을 세우고 젊은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일군을 양성하였고 해방후에 삼팔선이 막힌 뒤에는 서울 공덕리에서 역시 성경학원을 경영하고 가르치며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사변을 만나 일본으로 건너와서「히로시마」에 머물러 계시게 되었다。 어서 평화가되면 한국땅에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한국동포들을 찾아서 만나면 자기 천척이나 만난듯이 반가이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금전으로도 도움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히로시마」의 우리 한인교회는 지금 목사가 없고 남자일군도 없는데 쿠퍼 목사님께서 봉사적으로 담임목사노릇을 하시면서 주일날이면 일속이 나가서 몬저 장년반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신다。

이미 한국에 바친 몸이라 굳히고 싶으나 허락지를 아니하여 가지못하고 지금 청원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허가되는대로 곧 돌아가서 고생하는 백제들을 반가히만나보고 싶다하였다。

# 在日韓國基督教界의現狀 (2)

牧師 李鐘聲

## 二、解放된教會

누구던지 一九四四年 마조막부터 一九四五년 여름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은 극도로 궁핍한 식량상태와 입수불능한 옷감 부족한 상태、소박하여진 인심이 아무소리 없이 날로날로 우리를 조여드는 불안과、공포의 생활 거리마다 부러진 전신기둥、엉굴어진 실방우리와 같은 전선 무덕무덕이 재(灰)를 변하여진 지나간날의 화려한 꿈을 싣은 집터 뜨거운 불꽃에 시드러진 잡초 사이를 쪽고 못해 살고있는 인류의 단말마(斷末魔)의 광경을 생각할것이다。 이것은 하날과 땅을 향하여 무거운 죄를 범한 일본인의 페망직전의 모습 일뿐 이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사실 종전직전의 재일본 한국교회는 음양으로 날마다 증가하여가는 일본경찰의 압박으로 그의 기능이 정지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다。그의 본질조차 유지할 길이 없었다。예배시의 일본말 사용 신조(信條)에 대한 압박 성경의 일부분의 삭제 목회자에 대한 파도의 감시 집회수의 제한등 이와 같은 압박이 닥쳐올때 교역자들은 대개 세가지 태도를 정하였다。

1일경에 대한 타협

2철저히 신앙의 정조를지킴

3피난

이중 대다수의 교역자는 피난의 길을 취하였다。혹은 본국으로 혹은 농촌으로 혹은 군수공장으로 이리하여 종전시 동경에 남어있던 교역자는 그 해 봄에 신학을 졸업한 여전도사 두사람 남전도사 한사람 교회당이 소실된 여전도사 한사람、이상의 네사람 밖에 없었다。또 다수의 교역자는 일본경찰과 타협하여 한국교회의 전통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성경조차 이단적 해석을 하여 대립에서 이러나는 분상사는 유감이나 보증할수없다는 대답외에는 좋은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이땅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민족에게 날마다 선포되고 있다。이것은 우리에게(미래에) 소망이 있다는말이다 우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되고 지적으로 발달이되며 도덕적으로 향상이되어 이 민족의 앞길을 지도할만한 등대가 된다면 그리고 이민족이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소망의문이 열릴것이다。

교회의 당면과제는 교회와양적 질의 동시적향상발전(同時的発展)에 있다 무지(無知)하면 무능(無能)해지고 무능력우에 지적무기를 가추라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 되자 민족은 교회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라。

## 新刊紹介

「元の薩の谷を歩むとも」 フルダ・ニーバー著 村妙子譯 聖書物語 振替大阪七〇五三 滋賀縣小幡地

# 서울神學復旧

## 東萊에新築

한국 성결교는 이번동란으로 서울신학교를 파괴 당하고 이건(李健)교장과 박현명 최성모 교수를 잃었으나 지금은 부산 동래(東萊)에 교사를 신축하고 원로(元老) 이명직(李明直)목사를 교장(校長)으로 모시고 학생 一五〇명이 동포 구령의 소명(召命)에 불타고 있다。

학감 김창근 목사의 언명하는바에 의하면 「전란이라는 화는 변하여 우리 민족앞에 축복을 가져 오는것으로 보인다 우리교파뿐만이 아니라 우리민족 중에서 신도가 간곳마다 교회마다 가득하게 나오는것은 감사할일이다。이들을 인도할 교역자도 신학교마다 정원이상으로 양성되고 있음은 이 아니라고 할수없는것이다。우리성결교회는 二十억원 예산으로 파괴된 교회당수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여러운 전란중에 선교사도 네분이 왔고 일본에서 대기하는 여선교사도 두분이있다 하였다。

## 新教徒逢難續出

### 旧教國의迫害露骨

최근 타임지(誌)에 의하면 지난 六月하순 콜럼비아옥음연맹은 푸라이어스에서 호세넬루나(25) 라는 청년이 콜럼비아경관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푸로테스탄트 조사원은 의외에도 二十여건에 달하는 신교도(新教徒) 피해사건을보고 하였다한다。또 크리스챤、사이엔스 모니타에 A P가 보도한 통신에 의하면 콜론비아 미국대사관은 콜론비아정부에 대하여六月二日에 경찰이 미국장로회 선교사택에 침입하여 가구를 파괴하고 개인소유를 약탈한 사실을 조사하여주기를 요청하였다。

콜론비아북음연맹의 언명한바에 의하면 로마캐톨릭교 지배하는 콜럼비아에서 과거二年간에 이러난 신교도 박해사건에는 때마다 선처를 요구하여왔으나 콜럼비아정부는 정식으로 캐톨릭(旧教)국이기 때문에 푸로테스탄트(新教)들이 콜론비아국민을 신교도 되게하려는 활동이 계속되는한 종교적 대립에서 이러나는 분상사는 유감이나 보증할수없다는 대답외에는 좋은 답변이 없었다한다。

## 新刊紹介

「元の薩の谷を歩むとも」 フルダ・ニーバー著 村妙子譯 聖書物語 振替大阪七〇五三 滋賀縣小幡地

# 說教

## 十字架의두길

W·T한체

# 說論

## 國內現實을正視

### 暗黑속에헤매는時代

金光佑

전쟁은 파괴와 고난을 함께 가져왔다。파괴속에서 재산은 희진되고 생명은 죽고 또 상하였다。고난의 물결은 여기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이 사나운 물결을 타고 흐르는 이민족은 양심을 상실하였다。최악의 사태로 이땅은 뜰이지 않은곳이 없게되었다。우리민족사상에 오늘날처럼 민족적으로 받은 고난의 쓴잔을 마신때는 없었으리라。이 진저리나는 파도기들 무슨방법으로든지 속히 청산하고 하로라도 빨리 광명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정부와 국회는 알륙과 마찰로써 혼난만을 빚어내고 있으니 민심은 통일을 않고 지동지서(之東之西) 갈판대고 있을뿐이다。아!이암흑을 거더차는 새벽은 언제나 올것인고 빛이 그립다 기다려진다。통일이 몹시도 동경되어진다。이혼난을 삼켜버릴 그 빛이 기다려진다。

이암흑을 삼켜버릴 그 빛이 기다려진다。통일이 몹시도 동경되어진다。이혼난을 몰아내고 중돌파 중상 음모와 악선전에 총지부(終止付)를 가져올 그 통일 국토의통일 민족사상의 통일 정부와 국회의 통일 그 중에도 그회의 통일의 몹시도 기다려진다。이땅의지도자는 어둠속에서 잠교대만 하고 있지 않은가。

### 問題의泰山

인류역사상에 오늘날처럼 문제가 많은시대는 없었을것이다 사상의금을 중간에 두고 양대진영은 날마다 피흐르는 싸움을 계속하고있다 우리땅은 그 표본이 되었다。피차에 문제는 해결을 위하여 싸운다고하나 문제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쌓이고 또쌓이어 태산을 이루었다 태산같은 문제에 눌리어 허더기는 이 민족을 생각할때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우리에게는 문제만이 날로 쌓여질뿐 이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안식한다 심력의 빈곤(貧力貧困)처럼 우리의 아픔을 아프게 하는것은 없다

그것은 거지철학의 어미가 되는까닭이다。정부국회로 부터 교회 금 일반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드가 원조받을 궁리만 하고있다。어느때나 우리는 남을 도움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도아줄수있는 심력을 가질수 있을것인가 우너진 강산과 헐벗고 굶주린 민중을 바라볼때 거지철학을 슬퍼하는것은 그것이 의존주의(依存主義)의 산모(産母)가 되는까닭이다。이 의존주의(依他主義)의 정신으로 민족의 누구의 마음을 헤쳐보 아도 원조받을 궁리만 하고있다。 그마음이 안된줄 알면서도 그마음을 아니가진수없는 우리의정형 어찌 슬프다 하지않으랴。

### 한줄기섬광(閃光)

그러나 이땅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민족에게 날마다 선포되고 있다。이것은 우리에게(미래에) 소망이 있다는말이다 우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되고 지적으로 발달이되며 도덕적으로 향상이되어 이 민족의 앞길을 지도할만한 등대가 된다면 그리고 이민족이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소망의문이 열릴것이다。

교회의 당면과제는 교회와양적 질의 동시적향상발전(同時的発展)에 있다 무지(無知)하면 무능(無能)해지고 무능력우에 지적무기를 가추라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 되자 민족은 교회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라。

## 在日韓國基督教界의現狀 (2)

牧師 李鐘聲

## 二、解放된教會

누구던지 一九四四年 마조막부터 一九四五년 여름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은 극도로 궁핍한 식량상태와 입수불능한 옷감 부족한 상태、소박하여진 인심이 아무소리 없이 날로날로 우리를 조여드는 불안과、공포의 생활 거리마다 부러진 전신기둥、엉굴어진 실방우리와 같은 전선 무덕무덕이 재(灰)를 변하여진 지나간날의 화려한 꿈을 싣은 집터 뜨거운 불꽃에 시드러진 잡초 사이를 쪽고 못해 살고있는 인류의 단말마(斷末魔)의 광경을 생각할것이다。 이것은 하날과 땅을 향하여 무거운 죄를 범한 일본인의 페망직전의 모습 일뿐 이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사실 종전직전의 재일본 한국교회는 음양으로 날마다 증가하여가는 일본경찰의 압박으로 그의 기능이 정지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다。그의 본질조차 유지할 길이 없었다。예배시의 일본말 사용 신조(信條)에 대한 압박 성경의 일부분의 삭제 목회자에 대한 파도의 감시 집회수의 제한등 이와 같은 압박이 닥쳐올때 교역자들은 대개 세가지 태도를 정하였다。

1일경에 대한 타협

2철저히 신앙의 정조를지킴

3피난

이중 대다수의 교역자는 피난의 길을 취하였다。혹은 본국으로 혹은 농촌으로 혹은 군수공장으로 이리하여 종전시 동경에 남어있던 교역자는 그 해 봄에 신학을 졸업한 여전도사 두사람 남전도사 한사람 교회당이 소실된 여전도사 한사람、이상의 네사람 밖에 없었다。또 다수의 교역자는 일본경찰과 타협하여 한국교회의 전통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성경조차 이단적 해석을 하여 대립에서 이러나는 분상사는 유감이나 보증할수없다는 대답외에는 좋은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이땅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민족에게 날마다 선포되고 있다。이것은 우리에게(미래에) 소망이 있다는말이다 우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되고 지적으로 발달이되며 도덕적으로 향상이되어 이 민족의 앞길을 지도할만한 등대가 된다면 그리고 이민족이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소망의문이 열릴것이다。

교회의 당면과제는 교회와양적 질의 동시적향상발전(同時的発展)에 있다 무지(無知)하면 무능(無能)해지고 무능력우에 지적무기를 가추라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 되자 민족은 교회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라。

(在日本朝鮮基督教聯合會創立總會)

# 十字架의 두길

## W·T한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확실히 잘못되었었다。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만 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다 볼 필요가 있다。

「나치스」의 이론적(理論的) 원조(元祖)요 전체주의의 지도자로 유명한「니이체」는 청년시대에 당시의 기독교에 대하여 크게 염증을 느꼈었다。그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한 윤리이나 위안거리에 지나지못하였다。그런고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그대들은 과연 사랑의 생(生)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 태평하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있는 기독교도들이여!』이 간단한말에는 과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인에게 큰 반성을 줄만한 적절한 암시와 진리가 있다고 할수있다。

또 독일의 철학자「스펜글러」는 그의 저서 「서구퇴폐」에서 백인종은 단지 어떤일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어떤 일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고로 이제 퇴폐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요점은 싸우는것이었다。그는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와 종들하고 싸우게 되셨다。주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놓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법과 유전(전통)을 지키기에 굳어진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정면으로 공격을 가하였다。그것은 곡 오늘날 문명과 그가운데있는 교회가 하는것과 꼭 같은것이었다。예수께서는 그때 지도자들을「회칠한 무덤」이라 하였고 「독사의 종류」라고 하였다。그는앞에 울 십자가를 각오하시면서도 성전에서 돈장사하는 상을 둘러엎으셨다。그리고 신변이 위험하다고 피신하시기를 권하는것을 거절하셨다。그는 타협을 거절하셨다。어떻게 살육을 아시는 동시에 어떻게 죽을줄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억지로 변화 시키려고 하지아니하셨다。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죽게하는 정치적 무력적인 혁명을 거절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죽어서 전에없든 무엇을 사람의 영혼에 주셨다는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그다음에는 열심으로 그것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것이다。종종 되푸리하여 복습도 한다。공부의 목적은 항상 명백히 의식케 하여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한 기준이 되게한다。학생들은 이런 목표에 자기들이 한 일의 결과를 비추어 반성 비판하여야 하는것이나 다 배우기 전부터 도중에서 일을 동명이처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5) 학습은 배우는자의 태도 휴은 마음준비와 많은 상관이 있는것이다。어떤 사람이 하루 밤온많은 손을 청하여 연회를 열었는데 연회 한창인 때에 갑짝이 여러 사람들에게 「볼 이야」하고 외쳤다。

손들은「원 농담을 그렇게」하고 웃고만 있었다。주인이 고집한쪽 손들은 더욱 웃을 뿐이었다。마침내 방안에까지 울길이 밀어 들어오고 말았다 사람들은 주인이 남을 웃기자 그 그런 말을 한줄로만 생각하였던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교회나 교사가 학생에게 귀찬은 곳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벌서 그들에게 반가운것이 될수없게 되고 만것이다。종교교육에서는 기대(期待) 관심、예습(予習)등의 태도를 방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그러므로 그들이 살고있는 상황전체가 그들로하여금 종교를 시인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것이다。교사는 학생들의 공부에 생기가 찾념치게 하여 교회라든지 종교라는 말에서 마치 어머니 혹은 우리집이라는 말에서 울어나는 그리고도 유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여야 하는것이다。상급이나 대접으로 이렇게 될줄 생각하는것은 틀리는 생각이니 공부 시간에 유의미한 경험과 최고의 노력을 불러내는 동시에 학생의 최고 목적을 불러내 주어야 하는것이다。

한 소학교 선생에게 아침 아홉시에 한번 학교 구경을 가서 괜찮는가 물은즉 그의 말이「어서 요셔주신시오。환영합니다。그런데 오실 때에는 아무조록 상학하기 十五分전에 오시는것이 좋을줄 압니다」하였다。전에 우리가 소학교에 다니던 때의 생각을 한다면 지금 소학생들이 이렇게 일찍이 등교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것도 무리한것이아니다。그 본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그다음에는 열심으로 그것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것이다。종종 되푸리하여 복습도 한다。공부의 목적은 항상 명백히 의식케 하여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한 기준이 되게한다。학생들은 이런 목표에 자기들이 한 일의 결과를 비추어 반성 비판하여야 하는것이나 다 배우기 전부터 도중에서 일을 동명이처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6) 학습은 배우는자의 태도 휴은 마음준비와 많은 상관이 있는것이다。어떤 사람이 하루 밤온많은 손을 청하여 연회를 열었는데 연회 한창인 때에 갑짝이 여러 사람들에게 「볼 이야」하고 외쳤다。

손들은「원 농담을 그렇게」하고 웃고만 있었다。주인이 고집한쪽 손들은 더욱 웃을 뿐이었다。마침내 방안에까지 울길이 밀어 들어오고 말았다 사람들은 주인이 남을 웃기자 그 그런 말을 한줄로만 생각하였던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교회나 교사가 학생에게 귀찬은 곳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벌서 그들에게 반가운것이 될수없게 되고 만것이다。종교교육에서는 기대(期待) 관심、예습(予習)등의 태도를 방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그러므로 그들이 살고있는 상황전체가 그들로하여금 종교를 시인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것이다。교사는 학생들의 공부에 생기가

校學座講會師教教

# 學習의方法 (4)

魯安理

## 伝道欄

# 예수와救贖

그러나 결국 예수는 그때 유대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로마정부에 대한 불경죄(不敬罪)와 반역죄(反逆罪)로 몰려서 당시의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집행구인 십자가(十字架)의형벌을 받어서 참혹한최후를 마치였습니다。예수의 이 죽음은 단순히 한 의인(義人)이 악당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었다는 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의인이 우리 인간의 넘치는 죄를 담당하시어 피를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그때에 예수를 죽인 무리는 모든 악한 인간을 대표한 것입니다。곧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인간이 그 죄로 말미아마 마땅히 받을 형벌을 혼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나타났습니다。세계인류의 죄는 처단을 받고(곧 형벌을 받고) 또 동시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인간이 이로 인하여 사죄의 길이 열린것입니다。예수의 사랑의 죄가 소멸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붉은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낙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죽으심에 감격하고 그 피를 믿으면 곧 예수께서 내 죄때문에 피를 흘리신것과 그 피가 내 죄를 속할 수있는것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무한한 안심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것입니다。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예전에 대만(台灣)의 생번(生蕃)이 사는 어떤지방장관(長官)으로 오봉(吳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인같이 훌륭한 사람이로 그는 토인들을 극진이 사랑하였다。따라서 그 백성인 토인들도 그를 부형처럼 믿고 신처럼 높였다。

그런데 이 토인들은 일년에 한 차례식 사람의 머리를들여서 자기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그래서 오봉선생은 토민들의 두목을 불러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없는 나쁜 일이니 곧 폐하라』고 엄명을 내렸으나 종시 시행이 안됨으로 할수 없이 선생은 이미 사람을 잡아서 지금 신당 고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의 머리만 다 쏘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절대로 폐지하라고 간곡히 명하매 두목들도 그러면 그리하겠노라고 승락하고 약속하였다。

그런지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이미 있던사람의 머리는 다 전하게되였다。그때에 오봉선생은「이제는 다시는 그일은 아니 할터이지」하고 따진즉 두목들은 백성들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곡 한번만 용서해주면 더 사람을 잡아서 머리를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는 결단코 아니하겠으니 곡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므로 장관은 이것을 허락하였다。그 반면에 우리의 가는길에 세상의길과 같을때에 십자가는 이루어지는것이다。

예수의 길밖에 원만하고 완전한 생활이 없는것이오 완전한 사회제도도 없는것이다。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나를 섬기게하는것이 아니라 나자신을 남에게 던져주는길이다。십자가만이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니 자신을 주는것이 인간의 진정한 생활이요 하나님의 길로보아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세상에 있을때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니」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환난을 당하는가 여기에 환난이라는것은 우리 육신의 병이나 고통을말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병을 이기고 싸와 나가는 한 젊은 자의 눈물과 피의기록인 체험이니 한번 읽을만한 책이다。

發行所 近江兄弟社內 湖聲社


「死の蔭の谷を歩むとも」값六十錢 장래의사가 되어 일해보려는 커다란 「비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저자(著者)는 뜻밖에 병마의 침습을 받아 극히 되었으나 믿음으로 여러가지 병을 이기고 싸와 나가는 한 젊은 자의 눈물과 피의기록인 체험이니 한번 읽을만한 책이다。

振替大阪七〇五三

フルダ・ニーバー著 中村妙子譯

聖書物語

성경 이야기책은 많으나 이 책같은것은 드물다。하기학교에서 종등반에 쓰면 좋다。선새 사용하고있는 곳도 있다。가르치는 선생도 좋은공부가 될것이다。

값 구약一八〇圓 신약一六〇圓



折尾教會

6月19日

西南地方教會를찾아서 (3)

이틀날 밤 十一시에 우리는 「히로시마」에 내려서 그밤을 쉬고 이튿날 아침에 광도교회의 주인으로 힘많이 쓰시는 집사이신 성다복씨에게 연락하였더니 황송스럽게도 나많으신 쿠퍼목사님이 성집사와 같이 역관을 찾아오셨다。여러해만에 반가히 뵈옵고 인사를 드리고 오는 주일에 예배본 의논을 한뒤에 잠시 헤여지고 우리는 원폭 세례받은 히로시마 시가와 기념관을 구경하였다。三十분의 일초라는 순간에 사람이 二十七만명이 타죽고 그리고 철근콩크리트가 녹고 개와장이 녹은 흔적을보니 과연 놀라운 불세례당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도 완악한 인간들은 회개할줄을 모르니 참말 딱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저녁에는 쿠퍼목사댁에 청함을 받아서 동거하시는 두분 부인선교사와 한자리에서 훈훈한 대정을 받았다。이튿날 아침에 교회를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벌서 장년반 성경을 가르치신다。남녀 청년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있는것이 참 놀랍다。장년반이 끝나고 교역자가 없어서 더욱 갈망하는 교우들이오 또 주의 주시는 힘으로 부족한 설교에 뜻밖에 많은 은혜를 받는것이 진실로 고마웠다。『주여 광도!』 넓은지경에 흩어져있는 우리동포를 불상이 여기사 어서 선한목자를 주시고 하루바삐 예배당을 주시옵소서』우리는 간절한 축원을하고 이교회를 떠났다。

(히로시마교회)

廣島教會

6月23日

우리는 쫓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안목사와 여러 교우들의 저송을 받아「구마모도」를 떠났다。비는 그냥 내리오는 저녁에「오리오」역에 내리니、예배당안에 계신다는 장 형제가 마중나오셨다。역뒤에있는 교회에 들어갔더니、이종헌목사와 한장로두분이 약속대로 벌서와서 기다리고 계시다。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오 집사를 반가히 대하였다。

이날은 비가 줄곳 내리고 더구나 예맷날이 아니오 木요일이여서 집회가 안될줄 알고 염려하였으나 이곳의 민단장안 청수씨와 아시야(蘆屋)에 계신박온국씨부인 화차선씨의에 오집사네 가족과 그 밖에 여러분이 참석하여 훈훈한 모임을 보게 되었다。

이 교회는 최근에 움기고 수리를 하였는데 상당히 넓은 이층을 깨끗하게 꾸려 놓고 교회간판을 굉장하게 걸었다。오집사와 밀려부인과 여러교우들의 성력이 많이 들어서 이만큼 된것이라 참 놀라운 것이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오 집사는 지금 또는 인간이 죽은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하심이라」(요한三장十六절) 한것은 이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상에 오늘날처럼 민족적으로 받은 고난의 쓴잔을 마신때는 없었으리라。이 진저리나는 파도기를 무슨방법으로든지 속히 청산하고 하로라도 빨리 광명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정부와 중등과 중상 음모와 악선전에 경되어진다。이혼난을 물아내고 통일 국토의통일 민족사상의 통일 정부와 국회의 통일의 통일 그 중에도 그회의 통일의 몸시도 각할때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우리에게는 문제만이 날로 쌓여질뿐 이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탄식한다 심력의 빈곤(貧乏資困)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은 없다

## 한줄기 섬광(閃光)

충일(充溢)되어있다。그마음이 안된줄 알면서도 그마음을 아니가진수없는 우리의정형 어찌 슬프다 하지않으랴。

的疲歷)에 있다 무지(無知) 하면 무능(無能)해지고 무능력우에 지적무기를 가추라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 되자 민족은 교회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라。

감사할이다。이들을 인도할 교역자도 신학교마다 정원이상으로 양성되고 있음은 이 아니라고 할수없는것이다。우리성결교회는 二十억원 예산으로 파괴된 교회당수축 사업을 진


新刊紹介

# 祖國訪問記 (2)

金在和

## 韓中親善禮拜

한국에는 전란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사람들이 많습니다。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해방전에 왔던사람이라하는데 해방직후에도 재작년 전란이 일기전까지는 평화로운 한국(중국사람들은 조선인이라 하지않고 한궈린(韓國人)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를 한궈-韓國라 불렀다。

그들은 물론 공산주의를싫어서 평화경을 찾어 우리나라에 왔답니다。일본으로 가지않고 우리나라에 온것은 우리민족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못한것보다 중국인들은 더 좋지못하여 피난으로 일본에 가는사람보다 한국으로 온것이라 합니다。이들은 일본서 볼수있는것과 같이 경제적 지반은 우리나라에서도 강하여 보입니다 서울에서 큰 요리점은 중국집이었다는데 요사히 부산에서도 그런것 같습니다。간단하게 만들수있는 만두와 호떡과 우동은 그 맛있게 만드는법은 도저히 우리사람들의 쿡이 따르지 못한다하여 중국요리점이 번영한다는 말을 들을때 마음아픈 느낌이 일어났읍니다。그만 설명이 길어진것같어서 미안합니다。

중국인들 중에는 일본에 거류하는 우리교포중에 대한기독교가 있는것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난六月七日 첫주일 부산시내 중국인 기독교회에서 한중친선연합예배(韓國中親善連合礼拜)를 드렸습니다。

중국교회는 중국본토에서 몰론 여러교파로 나누어져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있다함은 재일본한국기독교회와 같음이 흥미 있는일입니다。우리나라교회에서 전에 중국선교도 하였거니와 중국에 가서 그리스도교에 입신하신 모모하신이들도 많은모양인데 이런이들이 이날 연합예배에 참석하였읍니다。

일본 나고야교회 김석문(金錫玟)장로와 나는 중국교회에 인연이 있는것도 아니였으나 특별초대의 광영을 받었읍니다 예배가 끝난후에 자동차로 해운대(海雲台)까지 나갔었는데 나는 고(故)여운형(呂運亨)선생을 명상하였읍니다。일제의탄압하에 이 해운대에 머물러 조국 광복의날을 기다리었다는 이야기는 나의마음을 격동 시킴이 적지아니 하였읍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회석에 나온 중국요리를 맛보고 내강토에서 나온 재료로 외국인이 이같이 조리(調理)하였고나고 생각할때 금수강산 만물이 풍등한땅에 다시한번 이땅에 접하고싶은 생각이 이러났읍니다。

식후에 중국통(中國通)이라하시는 최(崔)목사님의 사회로 저녁예배를 하였는데 평안북도 지사이신 백목사님의 설교는 한중(韓中)양국민에게 가르치는바심원 하였읍니다。

七月八日

방금 미국중인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회 협동총무 박영창선생의 안내로 한중예배에도 해군사병구락부(海軍士兵俱樂部)에서 열린다는 김치목목사의 환송회에 참석하였읍니다。김치목(金致默)목사는 대한YMCA連合會 지방부간사로 해방후 헌신적 역활을 하신 청년도아 년 청년목사로 한국기독교 청년운동 더욱히 해방후의 기독교 청년회 발전사에는 중심역활을 하신목사입니다。그는 변성옥 장석영 역대총무의 숨은 보좌역을 하였던것이 미국YMCA에 알리여져서 금번에 기독청년 운동연구차 도미하게 되었다합니다。

김석문장로와 협의하고 우리는 재일 한국Y를 대표하여 기념품을 드리고 부디 무사히 단녀오서서 폐허의조국에 여전하신 숨은역활로 이나라 젊은이의 버이며 지도자 되시기를 축원하였읍니다。

## 感時

# 黃金律

J.E.F

그런고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저 하는대로 너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마태七장十二절)

성경의 이절말씀은 모든 문학과 저술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당。이 말씀은「황금율(黃金律)」이라고 하는것이오 그리고 기독교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이와 꼭 같은 교훈이라고말한다。또 『내 종교는 저「황금율」이라』고 하는 말도 가끔 듣는다。

그리고 나는 종교가는 아니라도 황금율을 지키기를 힘써 보겠다고 하는이도있다。

그러므로 얼마큼이라도 도덕적 의식(道德的意識)이나 교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주님의 이말씀을 옳다고 칭송한다。

중국의 대성현인 공자(孔子)는 이와 꼭 같은 뜻을 다만 소극적(消極的)으로 말하였다。「자기가 남에게 취급을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이 도리를 마땅히 받아야 할것은 다시 논할것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쏘련 공산주의자들이나 또 그 세력밑에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엇이라고 말하던지 간에 그네들의 실행에 있어서 이 관념을 전적으로 거절한다고 하는것을 알수있다。저이들은 이를 거절할뿐아니라 이에 역행(逆行)을 하고「황금율」이 가르치는 바와 정 반대의 일을 행한다。공산주의자는 무신논자인고로 이 관념을 종교하고저하지않는 것은 남에게 배풀지 말라」하였다。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마음에 생각하는바와 같은 뜻이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파거 二千五百年 동안 이것을 도덕적 행위의 원리로 믿고 가르쳐 온것이다。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공자의 도리로 감화를 받었으며 그리고 이나라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관념은 거의 다 이 중국이 위대한 지도자 에게서 받은 것이다。그런고로 동양사람이나서양사람이나 다같이 이 원리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초로 할것없이 전 세계가 남에게 취급을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이 도리를 마땅히 받아야 할것은 다시 논할것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쏘련 공산주의자들이나 또 그 세력밑에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엇이라고 말하던지 간에 그네들의 실행에 있어서 이 관념을 전적으로 거절한다고 하는것을 알수있다。저이들은 이를 거절할뿐아니라 이에 역행(逆行)을 하고「황금율」이 가르치는 바와 정 반대의 일을 행한다。공산주의자는 무신논자인고로 이 관념을 종교하고저 하는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대로 너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마태七장十二절)

성경의 이절말씀은 모든 문학과 저술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당。이 말씀은「황금율(黃金律)」이라고 하는것이오 그리고 기독교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이와 꼭 같은 교훈이라고말한다。또 『내 종교는 저「황금율」이라』고 하는 말도 가끔 듣는다。

그리고 나는 종교가는 아니라도 황금율을 지키기를 힘써 보겠다고 하는이도있다。

그러므로 얼마큼이라도 도덕적 의식(道德的意識)이나 교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주님의 이말씀을 옳다고 칭송한다。

중국의 대성현인 공자(孔子)는 이와 꼭 같은 뜻을 다만 소극적(消極的)으로 말하였다。「자기가 남에게 취급을 받기를 바라는